프로그래밍 실습 과제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지식

201721963 정찬욱

이 책을 처음 알게된건 작년쯤 군부대에서 군중문서로 처음 제목을 알게되었다. 그때는 제목대로 ‘비전공자를 위한 책이겠구나, 나는 전공자 3학년이니까 대부분 아는 내용을 다루었을테니까 다른 책이나 읽어야겠다.’ 하고 넘어갔었다. 하지만 전역을 하고 복학 준비를 하는데 애매하게 아는것 투성이었다. API? 어디서 들어봤고 대충은 알지만 누가 ‘API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정도가 아니었다. 비전공자들도 이 책을 읽고 이 정도의 IT지식을 얻을 텐데 나는 전공자로써 이정도도 모르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 이번 기회에 읽어보게 되었다. 목차는 다양한 분야로 중요한 대분류되어 있었다. 언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API, Application, Web, DB, 라이브러리, Git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본 파트가 다 들어있었다. 현재 4학년으로 소프트웨어 종합설계 과목 시간에 졸업작품에 대해 설계를 하는데 뼈저리게 느꼈다. 코딩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코딩만 잘한다고 프로그램을 잘만드는것이 아니었다. 설계를 잘하고 로직을 잘 짜야 그 위에 갈고 닦은 코딩 실력이 빛을 발한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설계하느라 예전 전공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찾아보고 배운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을 줄은 몰랐다. 깊은 내용까지는 없지만 필요한 이유와 예시를 들어 잘 설명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왜 이 책을 읽어야하는지 잘 설명되어있다. 예시를 들며 잘 설명되어있는데.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개발자와 대화를 하며 프로젝트를 할 상황이라면 개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대화가 통하는데 그 잘 찝은거 같다. 예를 들어 기획자가 개발자에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개발자가 ‘이런 부분은 어떤거 때문에 안되고 저런 부분은 이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해서 일단은 기본으로 진행할게요~’하면 기획자는 못알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개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떤것인지 설명하고 이제 이러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거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소개하고 사람의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방식이 나와있고 사람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고 이걸 다시 컴퓨터가 알 수 있게 바꾸는걸 IDE를 통해서 개발자가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DE란 개발자들이 함수명이나 메소드명을 다 기억할 수 없기때문에 자동완성 기능이나 프로그래밍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게하는 컴파일을 지원해준다.

특히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API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데 API를 잘 다뤄야 좋은 개발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본 베이스가 되었다. API를 다뤄서 앱을 만들어보곤 했지만 처음엔 헷갈리는것 투성이에 단어조차 너무 생소했다. JSON, XML, GET, POST…등등 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에 어려웠고 이해하려면 네트워크부터 서버, 클라이언트도 이해해야했기에 처음 다가온 느낌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생각되었다. 하지만 API를 안 쓰고는 한계가 있었기에 연습에 연습으로 openAPI를 이용해 많은 정보를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앱을 만들었다.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 비전공자가 API까지 이해하기엔 많이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을 한학기동안 배워서 지식을 얻는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또는 학원 강의를 통해 들을텐데 같은 선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서 말한 데이터의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서버에 변환해서 저장하거나, 변환해 화면에 보여주기 등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올바르게 저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짜는것은 정말 신중해야하는데 데이터가 조금만 꼬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돈에 관련된 상점이라던가 o,x의 의사표현 데이터가 꼬여버리면 끔찍하다. 데이터는 1%의 결점도 없어야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의 특징이라한다.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개발자는 더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 개발자가 만들어서 올린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있어 검색해서 골라 사용하면 된다.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개발자들에겐 필수 도구이지만 비전공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즘 비전공자분들도 IT 산업에 뛰어들어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은 아마 그 분들을 위해 준비된 책이 아닌가 싶었고, 전공자로써 다 안다고 생각하지말고 이런 기초부터 확실히 다잡고 나아가야겠다고 다시금 생각되었다.

텍스트, 사람, 벽, 실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